



휴브파마

재도약 25주년 기념 행사 성공적 개최



1954년 창립한 글로벌 동물건강 및 첨가제 기업 휴브파마(Huvepharma®)가 재도약 25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불가리아에 본사를 둔 휴브파마는 지난 25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이어오며, 금년에는 매출 8억 유로(한화 약 1조 2,280억 원)로 예상되어 글로벌 순위 1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1개국 4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창립 25주년 행사는 열린 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단백질 생산의 중심은 축산업',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생산, 제대로 된 항생제 사용의 원칙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휴브파마가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적 최고의 발효 생산 인프라인 불가리아 페슈테라(Peshtera) 공장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은 2019년

준공된 정밀 발효 허브로, 160m³ 규모의 공정 발효조 21기와 20m³ 배양·중간 발효조 7기를 포함해 총 발효용량 3,500m³를 갖추고 있다. 자가 유틸리티, 환경 설비, 자동화 물류 시스템까지 갖춘 수직 통합형 생산 캠퍼스로, 휴브파마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설로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휴브파마 코리아(법인장 홍성철)는 이번에 5명의 핵심 고객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여 세계적 영양학 석학인 Justin Sherrad와 Aidan Connolly에게서 세계 동물성 단백질 산업에 나타날 다섯 가지 큰 기회, 1만년의 축산업 역사 및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세계 축산업 변화에 대해서 듣고, 직접 페슈테라 공장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스페인 최고의 투우장인 토레스 라스 벤타스 광장에서 깜짝 갈라쇼를 준비하여 진정한 스페인 스타일의 조명과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훌륭한 현지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휴브파마는 이번 재도약 25주년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동물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